



서른일곱번째 이야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사랑의 공동체

1. 기(起)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마지막 달 마지막 주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인터뷰가 되실 분으로는 오히려 조금은 낯선 듯 하면서도 금방 가깝게 느껴지고 함께 공유할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딱 맞춥니다. 환갑의 나이에도 소년의 눈빛을 지니고 계신 신현승 장로님이십니다.

Q: 간단한 본인소개(가족 및 사역)를 해주신다면?

A: 가족으로는 아내 안혜길 권사(57세, 초등학교교사)와 결혼한 아들 둘(30세, 28세)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작은아들은 군에 공군장교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며칠후면 손녀를 보게 됩니다. (24일이 미국에 있는 큰며느리의 출산 예정일이라고 하심) 수출입 무역회사를 19년 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당회운영위원 및 선교분과위원장으로 섬기고 있고 BEE에서는 이사 및 예배위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꾸준히 해오고 있는 주요 사역으로는 BEE사역과 이주민선교사역(아랍어예배)이 있습니다.

Q: 그러시면 언제부터 믿음생활을 하게 되었나요? 모태신앙이신가요?

A: 아니죠, 군 제대 후 대학 2학년 때 CCC에 있던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친구의 죽음도 겪게 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삶과 죽음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CCC 친구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신비로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삶이 변화되는 그 과정..... (실제로 장로님께서서는 이후로 담배와 술자리를 자연스럽게 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2. 승(承)

Q: BEE에서도 비포와 애프터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A: 그렇죠. 2003년경 BEE를 시작했는데..... 온누리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내적치유, 농어촌선교, 이주민선교 등등)들을 탐방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역이 무엇인지 찾고 있는 중에 BEE를 만난 거죠. BEE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갈라디아서 세미나를 듣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믿음생활을 잘 해오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새벽기도, 각종 모임, 각종 사역, 교회와 직장밖에 몰랐던 생활 등등) 알고 보니 다름아닌 바로 ‘율법주의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동안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나의 ‘억압과 폭정’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 ‘자유로움’을 알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권면하고 BEE 사역도 꾸준히 하게 되는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중간중간 외도(다른 사역)도 했지만^^

Q: BEE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인도자의 (긍정적 & 부정적)모습과 갈라디아서 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과목이 있다면?

A: 조금은 불안하고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을 기준에 따라 탈락시켰을 때 그 학생들과 BEE와의 관계가 완전히 결별되는 경우들을 몇 번 봤는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좀더 기다려주고 품어주었다더라면 곧 이어 잘 정착하고 안정된 구성원이 되지 않았을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본받고 싶었던 분은 본인이 충분히 익숙할 만도 한 수업을 더욱 열심히 준비하며 긴장감을 유지한 채 진행하는 인도자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과목은 ‘교회론’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출신이다 보니 전도중심적이고 사역중심적이라 교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취약했었습니다. 선교단체 출신들이 의외로 의욕만 앞서지 교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인데 교회론 수업을 통해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 ‘목자의 마음’도 깊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3. 전(轉)

Q: 교회에서는 선교분과위원장, BEE에서는 이사로도 섬겨주시는데 온누리교회와 BEE 선교의 장단점을 말해주신다면?

A: 온누리교회의 선교활동 특별히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타 선교단체에 비해 25년의 짧은 기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편입니다. TIM에는 전문화되고 열정 있는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죠.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동원과 파송은 잘 되지만 그 다음 사역들이 잘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파송 되신 많은 분들이 금호사역과 전도까지는 하는데 말씀사역이 부족한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

서 많은 사역들을 거쳐왔는데 그때마다 BEE를 적극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지금도 선교분과위원장으로 BEE를 잘 소개하고 융합선교의 측면에서 접목시키며 연합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서부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BEE의 말씀사역은 온누리교회 선교활동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BEE 안에도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쉽다면 좀더 많은 분들이 선교 분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Q: 예배위원장으로 BEE 가족들에게 바라는 바는?

A: 몇 년 사이에 BEE공동체 안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냉랭했던 공동체 안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테이블 리더들의 활약 때문이었습니다. 테이블 구성원들을 한 분 한 분 섬겨주시면서 다들 소속감을 갖게 되었고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모임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맙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선교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테이블 리더의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예배위원장으로 열심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지만 좋은 제안들은 충분히 실행이 되도록 언제라도 지원할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제안들이 계발되고 시행되어서 BEE가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테이블 리더들에게도 애정을 갖고 도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테이블 리더가 될 수 있고 테이블 리더입니다.

Q: BEE 50년 후를 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A: BEE가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거듭 생각해보면 분명한 것은 목표 지향적인 사역중심으로 오래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지향적이어야 가능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가 되어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50년 후를 내다볼 수 있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온누리교회의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최선수 장로님 한 분의 섬김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처음에는 평범하셨던 분들도 큰 재목들로 교회 안에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도 나누었습니다. 최 장로님도 결국엔 하용조 목사님의 영성을 이어받은 겁니다. 자격이 있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자란 사람을 세워도 그 안에 가능성을 보았고 부족함을 채워갔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메시지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다. 실수도 죄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할 수도, 실수할 수도 있는 존재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분 앞에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실패와 실수를 넘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다면 젊은 세대를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지금은 선교동원단체들이 침체를 겪고 있는 때입니다. 열정만으로 그들을 선동하는 시기는 저물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탕이 된 삶이어야만 그들에게 본이 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재생산의 출발은 말씀사역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역은 교회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필요한 곳에는 어느 곳이라도 달려가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비록 오래 걸린다 해도 청년 부흥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또한 BEE 가족 분들에게 권유합니다.

4. 사랑의 공동체

Q: 살아오시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 힘들었을 때는?

A: 아내를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CCC에서 시.시.하게 만났다고 하시네요^^) 갈라디아서 직전 아내와

싸웠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웬만하면 참고 지내는 아내 성격에 그렇게 상처 입고 있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안그래도 율법적이었던 저로 인해 더욱 힘들었을 아내가 드디어 화를 밖으로 드러낸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아니었다면..... 정말 BEE가 한 가정을 구했습니다 ㅎㅎ



Q: 10년 후 장로님의 모습을 그려보신다면?

A: 10년 후면 장로로서도 은퇴할 나이입니다. 70세.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그때에도 내가 소속되어있을 곳은 지역공동체와 BEE공동체 단 두 곳뿐입니다. 성과중심의 다른 사역들은 언젠가 사라져도 '사랑의 공동체'만은 남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필요한 곳에서 선교의 일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슬람선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 때 회심 후 처음으로 간 성경 공부모임에서 이슬람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초신자로서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까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인들은 어떤 선교의 전략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블레싱 이슬람' 행사를 통해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전략이 아닌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코란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만 있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에야 그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Q: 버킷 리스트는?

A: 우선 멋진 곳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쉼과 안식이 있는 그런 여행..... 푸른 초원의 스위스라면 더욱 좋을 것 같구요. 둘째로는 기타를 배우고 싶습니다. 늘 마음만 있고 바빠서 못했는데 시간이 된다면 꼭 기타를 배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초원에서 멋지게 기타 연주하기^^

Q: 나에게 BEE란?

A: 삶의 종교개혁. 제2의 회심..... 자칭 '사도'로 살아가는 율법주의자 한 사람을 구해주었습니다.

5. 알쓸신잡

Q: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A: 얼마 전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교포 철학자가 지은 책인데 얇기도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워 여러 번 읽었습니다. 현대사회에 우울증, 정신분열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는 선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다원주의에 빠지면서 기준이 사라지며 발생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뚜렷한 구분 없이 무한성과 주의를 추구하다보니 피로가 쌓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멍때림'의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던 일손을 멈추고 안식과 나눔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단순한 결론을 철학자들은 어렵게 어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BEE 공동체에서도 그러한 시간들이 마련되기를. (글:김종영, 편집: 이경주)



BEE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36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두 자녀도 결혼하여 집을 떠났고 이제 아내와 둘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삶이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EE 소식



동역자님들의 기도. 헌신. 사랑으로 올해도 **BEE Korea**가 주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